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36호(97/12/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새로운 변화의 해 9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소서.



서대표를 생각하는 사랑방

97년 송년회 안내

· 일시: 1997년 12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 앞 태평소(전화: 742-7928)

(성균관대 앞 육교 건너 세븐 일레븐 편의점 맞은 편 골목 2층)

· 참가비: 2만원

* 운영위원, 자문위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장기수 선생님, 사무국, 자원봉사자 등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합니다.

소한 추위에 떨며 레드 헌트 천막 상영

최악의 택일

최악의 선택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12월 4일 열린 공대위 회의에서는 최근에 진행되는 공안몰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레드 헌트 공개상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했다. 일정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권주간동안의 한시적인 농성이었다.

하지만, 12월 7일부터 기온은 급강하되었다. 겨울비는 우리를 실험하려는지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알고 보니 대한 추위도 울고 가는 소한 추위였다. 천막은 12월 6일 명동으로 반입했다.

12월 7일 사랑방 식구들만으로 명동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신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12월 10일까지 농성을 하겠다는 뜻을 알려나갔다. 그러자, 곧바로 전경들이 명동성당 일대에 깔렸다.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저들을 자극한 것이다. 경찰이 깔릴 때 우리는 철거민 천막에 모여서 대책과 역할 분담을 했다.

김동원 집행위원장과 합류하여 다시 역할을 나누고, 이날밤중으로 준비된 농성물품을 반입키로 했다. 그러나, 밤에 강화된 전경들의 경계태세로 반입이 무산되고, 밤 12시경 명동성당 주변을 푸른영상 봉고차로 빙빙 돌다 다음날을 기약하다.

겨울비 속의 기자회견

12월 8일 겨울비가 장마 때처럼 줄기차게 내렸다. 가까스로 전경들의 저지를 뚫고 오전 10시경 명동성당에 봉고차 진입에 성공, 오전 11시부터 주룩주룩 내리는 비 가운데 명동성당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기자는 거의 없고, 우리 쪽 사람들도 민가협, 유가협 어머니들을 포함해 겨우 10여명 빗 속에서 농성계획을 발표하고, 입장을 천명했다. 김동원 집행위원장은 “레드 헌트를 문제삼아 서준식 집행위원장을 구속했으므로 우리는 레드 헌트를 공개 상영키로 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우리도 잡아 가라. 우리는 기어코 양심수가 될 것이다”고 말

했다.

비는 눈으로 바뀌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김동원 집행위원장이 성당측에 우리의 농성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장덕필 주임신부가 없었다. 그대로 천막을 세우는데, 성당 사무장과 직원들이 술냄새를 풍기며 와서 막무가내로 천막을 칠수 없다고 제지하는 통에 몸싸움을 벌였다.

다시 주임신부와 협상을 해서 천막은 치게 되었지만, 성당측은 경찰로부터 꽤나 압력을 받는지 <레드 헌트>는 절대 상영치 말 것을 당부 하더라.

추위 때문에 외면당한 레드 헌트 상영

스치로플 몇 장씩을 바닥에 깔고 비닐과 이불을 깐 천막은 그런대로 바람대로 막아주고, 아늑했다. 오후 5시부터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앰프를 내다놓고 서명과 항의엽서 보내기를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오후 6시 30분 약식집회를 갖고,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 레드 헌트 상영을 위해 준비하는데 마침 김승훈 신부님께서 오셔서 성당측이 우리를 제지하려다가 포기했다.

봉고차를 입구로 끌어다가 봉고차 뒤에 스크린을 매달다. 하지만, 주위의 조명이 너무 밝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비디오 데크와 TV마저 끌어다 내놓고 상영했다.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힐끗힐끗 보고 지나간다. 어떤 제주도 아줌마는 “제주도 사람들치고 4.3과 관련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지만,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4.3을 알리는 노력을 해주니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간다. 10여명이 함께 보았지만, 끝까지 본 사람은 철거민 중 단 한사람뿐이었다. 날씨가 추우니 왜 이리 지루하게 길게 느껴지는지. 벌써부터 내일의 상영이 걱정된다.

밤에 전기장판 위에서는 두 여성들이 자고, 남자들은 옷을 뒤집어 쓴 채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다. 콧잔등이 시려웠다.

12월 9일 날씨는 맑았지만, 기온은 영하 6도였다. 거기에 바람까지 부니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으리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을 유인물을 돌리는데 추운 날씨 탓에 시민들이 손을 주머니에 꼭 넣은 채 유인물조차 받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손을 비비며 다시 유인물도 나눠주고 서명도 받았다. 항의엽서를 쓰는 사람들은 손을 비비고, 펜이 얼어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꾸준히 사람들이 서명대를 다녀갔다. 이날 오후에 학생들 여섯이 결합하여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들을 이창조씨가 끌고나가 지하철 선전을 한다. 무려 8만원을 모금해 오기도 했다. 저녁시간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천막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 40명 가까운 인원이 앉고, 서고 하면서 레드 헌트를 감상하는데 무척이나 진지하다. 마치 옛날 시골에서 흑백 텔레비전 한대 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레스링 보던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각 항목마다 손을 들라고 하는데, 장기수 할머니들이 야단이다. 미국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한대로 40명이 천막 관람

이날 신문광고가 난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레드 헌트도 보았고, 레드 헌트 상영하겠다고 찾아왔다. 국가보안법 어기기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으로 보아 이 나라에는 좌익사범들이 알게 모르게 꽤나 많은 것 같았다.

밤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소주 한 잔만 하자고 했는데, 민예총에서 집들이 음식을 잔뜩 싸갖고 와 위, 아래 천막에 나눠주니 이웃을 잘 두었다는 인사도 들었다. 새벽 2시 반까지 술잔을 기울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가 모자라 김동원 감독과 영상팀은 푸른영상으로 봉고차르 몰고가 자고 왔다. 이날 가스난로도 되지 않는다. 날씨가 차가운 탓에 가스마저 얼기 때문이다. 가스통을 부탄가스로 계속 녹이며 난로를 피워야 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49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온은 더 떨어져 영하 10도, 오전 홍보는 포기했다. 아침을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날의 집회 준비로 역할을 나누고 있자니 중부서 보안과 형사가 찾아왔다. 레드 헌트를 틀면 입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동원 집행위원장 왈,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리야 잡아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맘대로 하라”고 으박질렀다. 그러니 형사가 도리어 사정이다. 한 마디로 자기네들이 성가시다는 투였다. 우리는 형사에게 만약 밖에서 상영을 못하면 그것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천막에서 하는 것이라고 못박아 주었다. 예정되었던 오후 5시 30분, 레드 헌트를 상영하려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전날만큼의 사람들이 천막에 가득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5시 50분이 다 되어 천막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

양심수 석방 기원의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오후 7시 5분경부터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40주년 기념식 및 공안 탄압 규탄 집회’를 가졌다. 레드 헌트를 보던 사람들과 전화로 열심히 와달라고 부탁한 탓인지 그럭저럭 1백명이 넘었다.

김진균 교수님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설명하고, 민교협이 백도명 선생님이 최근의 박지동 교수 사건과 이장희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사회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말씀을 하시고, 권오현 선생님이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에 대한 합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흥을 돋구어 주었고, 결의문을 낭독한 뒤 명동성당 입구에서 촛불을 밝히고, “서준식 선생을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 “공안몰이 중단” 등을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다시 레드 헌트 상영, 천막 철거, 2차에 걸친 뒷풀이를 마치고 나오니, 하늘에서는 솜처럼 눈이 내렸다. 눈내리는 명동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마친 시각은 11일 새벽 2시경, 명동성당 농성은 아쉽게 막을 내렸다.

농성에는 사랑방 실무자, 자원봉사자 김은숙씨와 김동원 감독을 비롯한 독립영화인, 전국연합의 고상만씨 등이 수고했지만, 공대위 차원의 조직적인 결합에서는 서운할 정도로 동한했다. 하지만, 최근 대선에 모두 빠져서 공안몰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농성이라고 해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영등포에서 아빠의 첫번째 편지>

사랑하는 보슬아, 혜수야.

날씨, 많이 추워졌다. 재미있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보슬이는 여러 날 동안 아프다던데 이젠 괜찮은지? 너무도 오랫동안 너희들과 헤어져 있었던 것 같다. 무척 보고 싶구나. 목소리도 무척 듣고 싶구나.

아빠가 힘센 아저씨들 여러 명에게 잡혀갔던 날, 수갑차고 잡혀가는 자동차 안에서 뭘 생각했는지 아니? 너희들 생각이었다.

“아차! 보슬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어주어야 되는데... 참, 혜수 자전거도 비를 맞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안쪽으로 들여놓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가면 안되는데...” “에이 참, 이렇게 잡혀갈 줄 알았으면 보슬이랑 아침 공부를 더 해둘 걸... 혜수한테도 공부를 가르쳐 줄 걸... 에이 참, 동전 가지고 하는 마술도 가르쳐 주고 올 걸... 에이 참! 에이 참!” 그리고 지금 차가운 마루방에서 혼자 앉아서 뭘 생각하는지 아니?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맨 먼저 뭘 하지? 내 친구랑 술 마시러 갈까? 아니야! 맨 먼저 보슬이 자전거에 바람 넣고 혜수 자전거 들여놓고, 그런 다음에 내 친구를 만나야지!”

보슬아, 혜수야. 너희들과 만나지 못하고, 매일 너희들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빠는 너희들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가슴 속에서 자꾸만 커간다. 지금은 못 만나지만, 언젠가 또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되면 아빠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살 것 같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잘 해 줄 것 같다.

보슬아, 혜수야.

아빠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무척 궁금하겠지? 여기는 경찰에 잡혀온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이란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성처럼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고 쇠로 만든 커다란 문이 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또 쇠로 만든 작은 문이 있고, 또 한팜 가면 여러 개의 철문이 있고 제일 안쪽 건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건물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아빠는 그 중 조그만 방에 혼자 있는 것이다. 아빠가 사는 방은 너희들 방을 절반으로 자른 크기인데, 쇠로 된 방문은 밖에서 열쇠가 잠겨 있다. 이 방에서 아빠는 하루 종일 너희를 생각하다가, 너희 엄마를 생각하다가, 혹은 책을 보다가 하면서 살고 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담요를 깔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가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일어나 운동도 한다.

밥 때가 되면 심부름하는 아저씨들이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 든 커다란 바깥스통을 수레에 싣고 탈탈탈 밀면서 모든 방에 밥을 주고 다닌다. 오늘 저녁 반찬은 좋았다. 콩나물국에다가 김치반찬과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감자 반찬이 나왔는데, 아빠는 커다란 밥그릇에 담긴 보리밥에 그 돼지고기 감자 반찬을 몽땅 쏟아버리고 마구 비벼서 싹싹 씹어 먹어버렸다. 너희들과 다시 만날 때 건강하고 예쁜 얼굴로 만나고 싶으니까 아빠는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는다.

여기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술을 못 마시게 한다. 가끔 담배를 무척 피우고 싶을 때가 있지만 꼭 참는다. 지금 아빠는 이곳에서 나간 뒤, 너희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어도 담배는 안 피울 생각이야. 왜냐? 너희들이 담배를 싫어하니까. 너희들 엄마도 아빠가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니까.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빠는 꼭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술도 끊는다? 아니다. 담배는 끊어도 술만은 조금 마셨으면 좋겠다.

보슬아, 혜수야.

며칠 전에 아빠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한밤중에 집에 갔다. 꿈 속에서도 왜 철문 속에 갇혀 있는 아빠가 집에 갈 수 있었는지 이상했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안방 문을 열어 보니 너희들과 엄마가 자고 있었다. 장롱 옆에 아빠가 누울 자리를 남겨 두고 혜수가 곰곰이 인형을 끌어안고 예쁘게 자고 있었다. 아빠는 혜수 얼굴에 뽀뽀 한번 하고 장롱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물론 꿈 속에서 잠이 들었다.) 웅성웅성 주위가 좀 시

끄러운 것 같았다. 그래서 꿈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아빠는 생각했다. “애들이 잠깨어 학교 갈 준비를 하나보다. 아이구, 나도 일어나야지...” 졸리운 걸 참고 눈을 떠 보니 아빠 혼자서 누워 있었다. 집이 아니었다. 조그마한 마룻방이었다. 아빠의 왼쪽 팔에는 혜수의 곰곰이 인형도 없었다...

아빠가 늦잠을 잘 때면, 잠자는 아빠 왼쪽 팔에 곰곰이를 안기고 학교에 간 혜수 생각을 했다. 잠이 깨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아빠 팔에 곰곰이만 누워 있으면 왠지 아빠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는 완전히 혼자다. 곰곰이도 없다.

언제쯤 아빠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혜수 생일이나 보슬이 생일 때쯤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생일이 지나, 겨울 방학도 다 지나서 너희들이 3학년과 2학년이 될 무렵에 나갈지도 모른다.

너희들을 만나지 못해도 아빠 가슴 속에는 언제나 너희들이 있다. 아빠는 늘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해처럼 명랑하고, 별처럼 아름다운 너희들과 다시 함께 사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다음에 또 편지 쓰겠다. 안녕.

1997. 11. 20.
아빠가 쓴다.

<자료> 세계인권선언 49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오늘은 제49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2차대전의 참화를 겪은 세계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가 지고지선의 가치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날을 맞는 오늘,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이땅에서 평등과 자유, 인간의 존엄이 국가와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을 필두로 한 공안당국은 광주대 박지동 교수를 구속했으며,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힘을 기울였다. 또 과거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문화예술인들의 글을 문제삼아 교과서에까지 '이적'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공안몰이가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는 한달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 제주 4·3항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이며, 이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다는 것이 인권운동가를 구속한 검찰의 변명이다. 이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세력들이 레드헌트를 통해 4·3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서준식 씨를 구속하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의사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 강조한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출소한 시국사범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통제하도록 한 보안관찰제도는 이중의 형벌이며, 부당한 사생활 침해행위라는 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보안관찰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한편, 이 땅의 소수 가진자들은 그들의 전횡과 부패가 초래한 한국경제파탄의 책임을 힘없는 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닥칠지도 모를 대량의 해고와 실업사태는 전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권력자들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반인권적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49주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학문사상의 자유 짓밟는 공안몰이 중단하라
- 표현의 자유 유린하는 검열제도 철폐하라
- 제주 4·3의 진실, 즉각 규명하라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 표적수사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이중형벌 부당감시,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 인권탄압 선봉부대, 좌익합수부 해체하라

1997. 12. 10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

사 / 업 / 보 / 고

(97년 11월 셋째주부터 12월 둘째주까지)

서대표 1월 중 재판 예정

-공대위 2단계 사업 준비중-

지난 11월 13일 결성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까지의 농성을 끝으로 1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33개 단체로 늘어난 공대위는 대선까지는 결과를 관망하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대위는 '〈레드 헌트〉 함께 보기' 활동을 통해 학교, 교회를 비롯한 약 50여개 장소에서 상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명과 설문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략 약 120여곳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영 활동은 우선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이라고 검정이 지목한 이 작품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내리자는 의도와 서준식 대표의 구속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안세력이 4.3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작품의 확대 상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4.3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집요한 탄압으로 인해 몇 개 학교와 교회, 성당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회원들끼리 보는 것에 그쳐서 사회적인 파급력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은 10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변호인단 중에 재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기획단이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근에는 보석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서대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대표는

지난 11월 28일 기소된 이후 사건이 서부지원 합의부에 배당이 되었고, 1월 초순께 재판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위는 지난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인가'란 주제로 역사학자, 영화인, 법률가, 학자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인권주간을 맞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공대위는 국내외에 홍보할 근거인 자료집을 만들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제단체들에게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문제제기 등을 할 예정입니다. 12월말까지는 휴지기를 가진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추어서 서대표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7년 인권 10대 뉴스 조사 작업중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연말을 맞아 인권 10대 뉴스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로 김정권 하의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대 뉴스 선정작업을 벌여 올해는 12월 26일자로 중간하게 되며, 중간호에 10대 뉴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낼 예정으로 문민정부 하의 인권상황을 정리해서 함께 실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 교재 작업에 박차

인권교육실은 연세대학교 교육동아리 '열음' 회원 7명과 만화작가 1명과 더불어 대학생을 위한 인권교재 개발작업을 진행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서론부분이 완성될 예정이고, 다음해 1, 2월에 집중적으로 집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실은 '국제평화아동(Peace Children International)'의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프로젝트인 아동권리교육 교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48개국의 5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인 아동권리 교육 교재는 내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유엔에 헌정될 예정입니다. 참여한 모든 단체의 이름이 명기될 것입니다.

파리서 열린 “아동의 권리와 교육” 참가

류은숙 인권교육실장과 최은아 총무가 지난 11월 14일부터 26일까지 런던과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앰네스티 본부를 찾아 서준식 대표의 석방운동을 논의했으며, “인권과 개발을 위한 교육센터” 등을 방문하여 50여점의 인권교육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출국목적이었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회의는 11월 20일~22일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 주요내용: 아동의 권리와 교육(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내용 중에서 특히 교육관계조항을 중심으로 기존교육에 인권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에 중점을 둠)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연설; 미래를 위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시점이라며 거대예산항목인 국방비를 줄이고 아동교육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함

- 패널토론;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사회적 화합과 아동의 권리/아동노동에 관하여

- 보고서 발표; 각국 참가자들의 사전보고서(사랑방은 지난 6월에 제출)에 대한 분석보고서/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대한 각국 정부최초보고서의 교육관계조항에 관련된 서술 분석

- 토론방향; 3세계 참가자들은 부모의 고용안정과 가족지원서비스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으로 주장한 반면, 1세계 참가자들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법적보장의 상충발전을 이루려는 입

장을 보임

<동정>

□ 서준식 대표가 12월 8일 열린 제9회 KNCC 인권상을 옥중 수상하셨습니다.

□ 부운영위원장이신 강경선 교수가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 자문위원인 염규홍 씨가 11월 25일 아들 염원을 얻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답니다. 축하합니다.

□ 엄주현 씨의 남편 유점열 씨가 11월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료의 보고-97 국감자료집 출간

인권정보자료실에서 '97 국정감사 자료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에서는 국가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96년부터 자료집으로 묶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엮은 '97국정감사 자료집에는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위, 외무통일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 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97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자료집에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권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시시오. 통신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주문에 맞춰 자료집을 묶습니다)

각 자료집 분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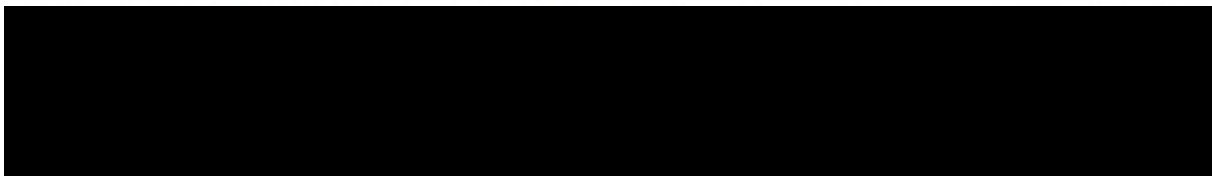
환경노동위 I, II(798쪽 각 2만5천원)/법제사법위(632쪽 4만원)/내무위 I, II(785쪽 각 2만 오천원)/보건복지위(243쪽 2만원)/외무통일위(159쪽 1만5천원)/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1만원)(문의 : 741-5363 인권정보자료실)

97년 11월 재정보고
(97년 11월 11일 - 12월 15일)

전기이월: -634,612원

수 입		지 출	
회비	2,266,700	활동비	3,620,000
구독료	2,837,600	발송비	635,980
사업수익	314,100	사무비품	66,580
후원금	330,000	사무실유지	698,030
기타	201,081	자료구입	564,000
		식대(야근)	200,000
		전화요금	911,611
		사무기기	33,000
		복사비	242,875
		기타	34,200
수입총액:	5,949,481원	지출총액:	7,006,276원
최종결산:	-1,691,407원		

<11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서대표께 편지와 면회를!

- 편지할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번 3444 우편번호: 152-081
- 면회하실 분은 인권운동사랑방 엄주현씨에게 문의하십시오. 면회 일정을 정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사랑방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상근자들의 활동비, 사업비 등으로 매우 긴요하게 쓰입니다. 사정이 어렵더라도 밀린 회비는 꼭 청산해 주세요.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